





나는 자랑스런 겨레의 스승 오늘도 사랑과 긍
지로 제자앞에 선다.

언제나 나를 새롭게 하여 한점 부끄럼 없는 거룩
한 스승의 길을 가련다.

이길이 고되고 어려워도 내 정성 다하며 겨레의 미래를 가꾸는 보람에 산다.

崔烈坤 서울시 교육감이 지으신 「스승의 보람」이란 詩이다.

인구수 1천만명의 대도시인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교육을 총 책임맡아 이끌어
가는 崔교육감은 2백30여만명의 2世국민 교육을 위해 오늘도 “한점 부끄럼없는
거룩한 스승의 길을 가고” 있는것이다.

——서울시 교육위원회만이 갖는 자랑거리라던가 학교보건의 특수사업이 있
으시다면 이 기회에 한 말씀 해주십시오——.

『건강이란 현대인에겐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자연공
해가 없을때는 생활자체가 건강생활 이지만 지금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건강관
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나 가정, 사회는 건강관리교육에 관심을 가져야된다고 생
각합니다.

건강생활은 학교에서 배우는 체육시간이나 건강교육시간보다 자연스럽게 생활
습관을 길러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는 습관이라

서울特別市 教育위원회 教育監 崔烈坤씨

던지 아침 저녁마다 조깅을 하는것을 습관화한다던지 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자기 건강을 지키는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건강을 위한 조기진단이나 1년에 2번씩 기생충검사를 한다던지
하는것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강조할것은 육체건강이란 한계가 있지만 정신건강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마라톤 선수와 같아서 정신건강은 우선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학계에서 유명하신 某인사는 80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정하
신것을 보면 그분의 일상생활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시다는 결론입
니다.』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시는 崔교육감의 모습에서 예지(叡智)에 빛나는 날카로

운 눈매를 비울수 있었다.

『자랑거리구요? 첫째로 학교건강관리소를 들 수 있지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민이 갖고 있는 건강관리소지요. 서울시내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기위해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세운 학교건강관리소는 내과 소아과등 진료시설도 갖추고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들의 건강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관리소는 서울의 학교보건에 공헌한 공이크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들 있습니다. 그동안 순회방문진료등 뚜렷한 봉사정신으로 많은 실적을 올린바 있었습니다.

한가지 고맙게 생각하는것은 우리 서울의 학생들은 좁은 체육공간속에서도 건강관리에 힘을써서 체력이 향상된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崔烈坤 교육감은 차분하고 조용한 말솜으로 학생극장 운영과 생활영어교육등을 자랑거리로 손꼽으신다.

우선 학생극장을 나이 드신분들은 예전 학생시절의 학예회를 연상하면 자명해진다. 같은 관내의 같은 학교끼리 강당도 빌리고 운동장도 빌려서 학생극장을 만들고 공연을 갖는다는것이다. 중고생등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정서생활의 쉼을 심어줌으로서 인격완성을 기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것이다.

생활영어, 또한 기발한 아이디어였다. 일등국가로 부상하고 국제사회에 부응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국제적통용어인 생활영어가 필수적이라는것이다. 이리하여 착안한것이 국민학교 4, 5학년때부터 영어로 말하기, 영어로 듣기대회등을 열어 일상생활에서부터 영어의 생활화를 기한다는것이다.

기타 소년체전 3연패를 했다던지, 행정업무의 전산화등을 꼽을 수 있다고 자랑한다.

—지금까지 근 30년동안 교육계에 몸담아 오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교육이념 이랄까 교육철학이 있으시다면 어떤것이 있으신지요? —

『지금까지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느끼는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수도교육을 맡아오는 동안 각박한 물질문명으로 인하여 질서를 잃어버렸다 하는것입니다. 다시말하면 가치관의 전도(顛倒)가 문젯점입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 Self Control을 어떻게 하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修身으로 克己”를 하는것이지요. 자기자신을 챙기고 가다듬는것입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닥아올 미래사회는 더욱 더 복잡하고 잡다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 가치를 창조하고 자기성찰, 자기점검은 꼭 필요한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명상교육(冥想教育)은 절대적입니다. 가치관을 창조하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인내심이 생기며, 정신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정신건강면에서도 절대 필요한것이지요.

86년에는 모든학교에서 이러한 명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각 개인에게 힘을 주고 감옥을 입히는格으로 자기 인격을 완성하는데 뛰어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명상의 종류로는 1. 수시명상, 2. 무상명상, 3. 과제명상등을 교육종류로 하고 있어서 눈이 밝아지고 도통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한다. 자기를 가다듬으면 곧 상대방을 꿰뚫어보는 정신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할 때 교육감님이 느끼시는 보람이랄까 결실은 어떤것이 있겠는지요?—

『옛말에 師弟同行이라는말이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같은 체온을 느낄 때, 즉 제자의 아픔이 스승의 아픔이고 스승의 아픔이 곧 제자의 아픔이라고 생각될 때, 자연히 불량청소년은 없어지고 건전한 나라와 장래가 보장될것입니다. 新年 계획으로는 모든 프로그램에 師弟同行을 하는것을 원칙으로해서 교과 과정을 꾸려나갈 심산입니다.

보람으로 말한다면 師範이란 각고의 자기수련이 있어야합니다. 이런 결과로 현재가 있는 것인데, 예로서 제자가 성공했을때, 자족감이 생기며, 위대한 보상을 받았다는 보람을 느낍니다.

교육이란 곧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미래의 보람은 노력한만큼의 보람입니다. 세대간의 연결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것이고 문학, 지식, 기술, 전통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교육은 모름지기 温故而知新的이어야 합니다. 통찰력을 갖지 않으면 쓸모없는 교육이 되고 맙니다.

내가 생각하는 수도교육은 미래지향적인것입니다. 이것은 변모하는 미래변동에 대처해서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것이지요. 이상 말씀드린것이 100% 이루어질때 우리나라의 미래는 약속되는것입니다.』

힘주어 이야기하는 崔교육감의 모습에서 기자는 어느 위대한 교육철학자의 교훈을 듣는것같은 훈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

◎…崔烈坤교육감은 부산시 부교육감, 문교부 학술진흥국장, 동 사회국제교육국장, 서울시 부교육감, 중앙교육연수원장등 요직을 두루 거쳐 현직에 취임한 엘리트.

취미로 동양蘭에 심취하여 100여종이상을 기르는 가히 프로급人士 儒教에도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다.

부인 成藥善여사와의 사이에 2男1女. 장남은 미국유학중 PHD코스를 밟고 있으며 말사위 역시 미국유학중인 학사가정이다.